

바티칸국의 수장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위독하다고 하더니 마침내 서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온 세계의 보도매체들이 연일 장례절차를 보도하고 교황의 업적을 되새기는 기사를 보내주고 있다. 가히 전 세계가 추도의 물결에 휩싸였다고 할 만하다. 각국의 정부 수반이 다투어 애도의 메시지를 발표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국가로 인정되는 바티칸국의 수장이 서거한 데 따른 외교적 조치라고 볼 수도 있겠고, 세계 각지의 가톨릭 신자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애석해하며 슬픔에 잠긴 것은 해석이 필요 없는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밖에도 종교를 불문하고, 또 문화권을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황을 진심으로 추모하는 것은 범상한 일이라 할 수 없다. 특히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로마 가톨릭과 좋은 관계라고 할 수 없는, 심지어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종교와 지역의 사람들, 나아가 그런 관계와 특별히 관계가 없는 일반인들도 널리 추모의 뜻을 표시하고 있다.

그것은 교황이라는 직위의 제도적인 권위와 무게, 중요성 같은 것과는 별도로, 요한 바오로 2세의 행적과 사람됨이 널리 존경심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일 것이다. 교황으로 즉위한 뒤의 행적에도 그의 신념과 됨됨이가 그대로 묻어나지만,



불자 세상보기

윤원철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교황이 남긴 것과 남은 자의 몫

그 이전의 술한 일화들이 교황의 범복이라는 무거운 옷과 무관하게 그가 얼마나 인자하며 인정이 넘치는 따뜻한 사람이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그가 일생을 바쳐 실현하고 확산시키고자 애쓰는 평화와 화합, 사랑, 특히 낮은 곳의 사람들에게 대한 특별한 관심이었다. 누구나 그런 가치를 구호로 외치기는 쉽다. 그러나 자기의 삶 자체를 그 가치를 구현하는 데 바치고, 어떤 위치에 있던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과 권한과 힘을 부단히 이를 위해 쏟아 붓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현실의 정황에 비추어보면 실현

하려는 그 가치는 너무나 막막하고 멀어, 그 점을 생각하면 맥이 빠지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삶을 통해 그 가치를 구현하고자 부단히 애쓰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감화시켜 그 길로 인도하는 이들을 존경한다. 요한 바오로 2세가 남긴 것은 그러한 삶의 전범이다. 거기에서 애써 정치적, 경제적 의미를 끄집어내어서 폄훼할 수도 있고 또 사실 그런 의미도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아무튼 그러한 삶의 전범은 각자의 작은 몸뚱이를 추스르는 데 급급한 우리 살림살이를 되돌아보게

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힘을 발휘한다.

그 힘을 받아 삶의 목표와 추구할 큰 가치를 정립하고 이웃에게, 제자에게, 자녀에게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를 뭉쳤다.

필자가 재직하는 대학에는 학생들 손으로 여러 보도매체가 운영된다. 전통적인 모습의 신문도 여럿 발행되고 인터넷 보도매체도 여럿 있다. 그런데 그 어느 곳에서도 교황 서거 소식을 다루지 않는 것을 보고 내심 놀라왔다. 주로 학생회의 투쟁 기사에다가 도서관 문제나 식당 문제나 하는 것들로 채워져 있다. 그런 것들도 정의(正義) 실현의 문제이니 직접 관련된 당사자들에게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교황 서거 소식이야 일반 보도매체에서 계속해서 자세하게 전해 주고 있으니 굳이 학생들의 보도매체에서까지 다룰 필요는 없다고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요한 바오로 2세가 평생 동분서주하며 우리에게 세심 가르쳐준 그 큰 가치 앞에 가져다 놓으면 등록금 인상 문제라든가 성적 나쁘게 받은 과목의 수강기록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라든가 학교식당 밥값과 밥맛 문제는 참 얼마나 초라한 정의인가. 조금만 눈을 열면 그걸 알아차릴 텐데 그러지 못하는 근시안인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럴 시야 속에 잡히는 바로 옆의 성인(聖人)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다.

불자의 눈 는설위원 기명사설

불에 타는 낙산사. 식목일에 전국에 생중계된 이 장면은 우리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하였다. 무엇보다 조선 초기를 대표하는 보물이 형체 없이 녹아내린 모습에 온 국민은 안타까워했다. 전날만 하더라도 좋은 안전하다고 알려졌지만, 그것은 방심이었다. 불은 바늘만한 틈도 허용하지 않았다. '꺼진 불도 다시 보라'는 조상들의 가르침이 우리의 가슴을 치게 한다.

도대체 우리의 방재시스템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원망스럽다. 우리의 사람은 대부분 산 속에 나무로 지어져 있어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 몇몇 큰 절은 나름대로 화재로부터 성보문화재를 지키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전하나, 대부분의 절은 무방비나 다름없는 상태이다. 그동안 우리는 도난을 막는 일에 급급했는데, 이번 산불은 도난보다 더 큰 피해를 우리에게 안겨 주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심정이지만, 같은 일이 결코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 문화재청과 불교계는 합심하여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현재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

낙산사 '복원'을 교육의 기회로

검고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방재시스템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지혜를 모으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며 일본과 같은 외국의 사례도 적극 검토하여 성보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한다.

낙산사는 신라시대 의상 스님이 세운 관음의 성지이다. <삼국유사>는 의상 스님의 관음보살 친견 장면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의상 스님은 통해 용왕의 도움으로 관음의 진신을 보게 되는데, 이 때 관음보살은 "산꼭대기에 한 쌍의 대나무가 솟아날 것이니 그곳에 절을 세우라"고 하였다. 이 절이 바로 낙산사이다. 일본 다이도쿠지(大徳寺)에 소장된 수월관음도에는 이 장면이 화려하고 섬세한 필치로 묘사되어 있다. 낙산사는 조선시대 관동팔경의 하나로 알려질 만큼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고 있다. 특히 낙산사 해맞이는 많은 이의 사랑을 받고 있다. 우리가 이 사찰에 깊은 애정을 보이는 것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자연 때문이다. 문화재청장의 낙산사를 창건 당시의 원형대로 복원하겠다는 발언은 매우 합당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낙산사를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여 이 사찰의 유구한 역사와 아름다운 풍광을 가꾸어 나가는 것은 분명 우리의 책무이다. ■ 정병모(경주대 문화재학과 교수)

낙산사 전소 그 참담한 소식

특별기고

520호 숙명여대 불교학생회 기사를 읽고

"음 아로누게 사바하"

영영 목 놓아 울고 싶습니다. 어찌 이럴 수 있는가 땅을 치며 하늘을 원망하고 싶었습니다. 낙산사! 관음도량! 그 절이 어떤 절인데, 그곳이 어느 곳인데 이처럼 허무하게 한 순간의 불길에 사라질 수 있었다는 말입니까.



제 눈에 비친 시뻘건 화염에 휩싸여 있는 종, 울부짖는 종소리가 환청처럼 제 귀를 때렸습니다. 아니 불타고 있는 것은 청동으로 만든 종이 아니라 관음대성 당신의 화신이었습니다. 스스로 불 속에 뛰어들어 자신의 몸을 태워 굶주린 수행자에게 공양한 토끼의 보살행, 그와 같이 낙산사가 불에 타 잿더미가 된 것은 관음보살께서 중생의 두터운 업장을 대신 소멸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불길에 무너지는 기둥은 건물 기둥만이 아니라 어리석은 중생의 거짓 믿음이고, 날아오른 기왓장은 국토개방이란 미명 아래 백두대간을 비롯한 이 땅을 갈갈이 찢어 놓은 우리의 악행이라.

이 모든 것이 '조선의 꿈' 이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눈을 비비고 보아도 꿈이 아닌 현실이었습니다. 이제 낙산사는 불에 타고 재만 남았습니다.

꺼진 줄 알았던 불씨가 강풍으로 말미암아 되살아나서 모든 것을 태웠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끝내 꺼지지 않는 불씨(佛種)를 원력의 바람으로 되살려 무명(無明)을 마른 풀을 태우듯 한 순간에 태워야 할 것입니다. 그 원력의 첫걸음은 종을 새로 만든 일보다 원통 보전을 세우는 일보다도 앞서서 바로 우리의 지난 허물을 참회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회는 신앙의 처음이자 끝이기 때문입니다.

낙원이 땅에 떨어져 새 불에 씌웁니다. 잔인한 사월. 하지만 봄이 오고 있습니다. 가지마다 새 순이 돋고 꽃이 필 것입니다. 가을에 낙엽이 떨어졌도 무상(無常)이고 봄에 꽃이 필도 또한 무상입니다. 관음대성이 머무시는 보타낙가의 바위굴에 철쭉이는 동해의 물결은 언제나 푸릅니다.

이기선(조계종 성보문화재위원)

젊음은 활력이 넘쳐흐르는 감성이고, 신선함이며, 기성의 태두리에 안주하지 않음이다. 그리고 이 젊음을 가진 것이 바로 대학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위한 직업양성소로 생존과 경쟁을 부추기는 공간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 현재 대학의 모습이다. 생존경쟁만이 삶의 전부인양 살아가기 쉬운 많은 대학인들에게 삶의 진정한 가치와 여유를 알게 하고, '본래 부처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불사(佛事)는 대학에 있는 대불련인들의 사명이다.

'기성'이라고 불릴 수 있는 교계와 사회의 변화에 대불련(회장 김홍현)이 그동안 기여한 바에 비해 기성의 태두리는 너무나 깊게 닫혀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불련이 침체되고 있다' '어렵고, 위축됐다' 라는 말을 한다.

이번에 처음으로 현대불교신문 520호 1면 기사를 통해서 대불련의 현황을 접하고 다시한번 놀랐다. 기독교계가 운영하는 사립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전체의

25%정도이나 대학교는 무려 75%나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불교계는 전체종단 통틀어도 1%(4개)에 불과하다. 이 수치만으로도 대학의 이념과 지향이 어떻게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또한, 한국대학생선교회(KCCC)는 전국적으로 각 대학에 상주하고 있는 간사들이 무려 30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도 짐작듯이, 이들의 생활비와 활동비는 전액 후원·지원되고 있다. 이에 비해 대불련

은 현재 10여명의 지도위원·간사들이 거점 지역에 있으나 그나마 활동비를 지원 받는 것은 일부에 불과하다. 교육과 기독이념을

책임질 간사단이 안정적으로 구축된 C.C.C.처럼 지역과 각 대학을 책임지고 전법(傳法)할 수 있는 공간과 간사들이 확대되어야 하는 것은 절실한 일이다.

대불련이 포진되어 활동하고 있는 대학의 숫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현황 속에서 대학의 공간을 잃는 것은 불교의 미래를 잃는 것이다.

현재의 대불련 학생리더들과 지도위원·간사들이 신심을 잃지 않고 무진등(無盡燈) 자체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한승희(대불련 지도위원장)

그 불길은 어디서 왔나 먼저 우리 허물 참회

하나 불이 났고 바람에 불길이 낙산사까지 번져 원통 보전을 비롯한 21동의 건물이 모두 타버렸습니다. 엄청난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자연현상이라 말할 것입니다. 사실 이번만 그런 것도 아니고 고려 때에도 가까이는 1950년 한국전쟁 때도 비극은 있었습니다. 그 때마다 참극을 당고 낙산사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모두가 아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누구라고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지금 그곳에서 그런 참극이 벌어져야 했는가. 우연히 일어난 산불일 뿐인가.

그것은 지옥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화방지역이 어찌 따로 있으리까. 사나운 불길이 활개고 지나간 낙산사, 아니 잿더미로 변한 그곳은 이수라장이었습니다.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았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비록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서였지만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곳을 즐겨 참배하곤 하였으나 관음보살의 모습을 뵈을 일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 다. 하지만 제 업장이 얼마나 두터웠으면 그 끔찍한 일을 이 두 눈으로 보게 되었을까. 차라리 꿈이었으면 싶었습니다. 눈을 감고 싶었습니다.

'연대' 민명 심민섭



최신납골시설을 갖춘 경주남산자락

보광사 봉불식 및 부처님 치아사리 친견법회

보광사 봉불식 및 부처님 치아사리 친견법회를 아래와 같이 갖고자 하니 공사다망하시더라도 꼭 동참해 주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광사주지 석관 합장 -

보광사
T. 054) 744-1008
F. 054) 744-4420

일시 / 2005년 4월 17일(日) 오전 10시
장소 / 경주 내남면 노곡리 보광사 대적광전

행·사·내·용

- 봉불식 및 부처님 치아사리 친견법회
- 대원 큰스님(학림사주지) 법문이 있습니다.
- 복장유물 「금발원문」 한가족 50,000원 접수하고 있습니다.

축·하·공·연 **설운도, 김영임, 김홍국** 外 다수 출연